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도: 가족 대표

예배기원

인도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흥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다같이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통 308장)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 주가 베푸신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

말은이

가족 대표가 기도하되 말을 가족이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영은교회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공동기도

다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하늘에 날아오르듯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다같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 460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밭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경봉독

인도자

출애굽기 19장 4-6절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나눔

말은이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며 인도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는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_출애굽기 19:4"

하나님께서서는 마치 독수리가 위협에 처한 연약한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감싸고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의 현실, 갑작스러운 문제로 때로는 삶이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가득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가족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